

복식에 표현된 큐비즘(Cubism)에 관한 연구

호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정연자

目 次

I. 서론	IV. 복식과 회화에 표현된 큐비즘의 비교분석
II. 큐비즘의 발생	V. 결 론
III. 큐비즘의 형성배경과 특성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복식은 건축이나 문학, 음악, 회화와 같이 특별한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발전된 예술의 한 형태로서 한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의복을 통하여 그 시대와 문화권의 사회계층 구조, 가치체계, 미의 개념, 도덕 기준, 기술의 발달정도 등을 알 수 있다.

복식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창의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예술양식으로, 각 미술양식에서 나타났던 조형상의 형태 및 색채는 복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공통된 표현기법을 보이면서 현대 복식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창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세기의 미술사조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은 우리의 현대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복식사가 Milla Contini¹⁾는 시대적으로 복식 스타일은 순수예술과 유대관계가 있어서 그 시대의 회화나 조각에 나타난 모티프가 복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Farrel-Beck & Petch²⁾는 샤넬(Chanel)과 비오네(Vionnet)의 색감과 동시대의 미술가인 피카소(Pablo Picasso)와 마티스(Henri Matisse)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색감 사이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순수미술에서 추구하는 철학적 의미는 복식 디자인에 영감을 준다고 하여, 복식과 타 예술분야와의 비교 검토를 펴려하였다.

또한 Jean Hamilton³⁾도 복식이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등 문화의 한 단면을 표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식과 회화에 표현된 큐비즘의 비교분석으로 예술과 복식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여 더 넓은 안목으로 조형예술 상에서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중심으로 큐비즘의 특성을 살펴보고 실증적 분석으로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집과 국·내외적으로 대중성이 있는 Collection 패션 잡지등을 분석·고

* 본 논문은 1998년도 호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찰하였다. 복식의 고찰 방법은 Delong⁴⁾의 관찰(observa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의 4단계를 적용하였다.

II. 큐비즘의 발생

예술사상 15세기 원근법을 제1의 혁명이라 한다 면 그 이후 제2의 혁명은 20세기초 큐비즘이라 할 정도로 현대의 추상예술을 잉태시킨 큐비즘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하다. 현대미술 가운데 큰 혁명과 시발점을 가리킨다면 피카소나 브라크를 중심으로 나타난 입체파의 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을 매혹시킨 것은 형(型)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간상에 나타나는 자유스러움이었다. 시간과 공간을 철학적으로 규명하기 시작한 것은 칸트(E. Kant)였으며, 그는 1787년 그의 '순수이성비판' 중의 선험적 감성론에서 공간과 시간의 정의를 엄정하게 규정함으로써, 철학적 논쟁의 씨를 뿌리게 되었다. 이후 100여년의 논쟁 끝에 칸트나 그 학파의 철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은 일체의 경험에 타당하며, 그 특성으로서 경험을 형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이 아닐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즉 공간을 생각할 수 없는 데서는 시간은 폐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규명에 뒤이어 아인슈타인(A. Einstien)은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 시간과 공간의 자연과학적 해석을 함으로써 그 철학적 고안을 뒷받침했다.⁵⁾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철학적인 성찰과 아울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엄정하게 규정됨에 따라서 그 보편 타당성이 조형예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형예술이 공간 형성적 예술이라는 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지며 상호 의존을 통해서만 의의가 있다는 해석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⁶⁾

공간적 요소를 다루는 조형예술은 작품과 감상

자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시간성, 작품 자체내의 고유한 시간 그리고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끝나 버릴 수 있는 창조행위 등 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⁷⁾

S. Giedion⁸⁾은 「Space, Time and Architecture」에서 금세기초 10년이래 사고와 감정의 별도 영역인 과학과 예술에서 시간과 공간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일한 개념을 지향하는 두 영역의 등장 시기가 일치함을 강조하고 있다. Bruno Zevi도 공간과 시간을 수렴한 수학이나 아인슈타인의 동시성 개념에의 공헌 없이는 입체주의(Cubism)나 신조형주의(Neo-Plasticism), 구성주의(Construtivism), 미래주의(Futurism)와 같은 후예들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⁹⁾

3차원 개념에 시간이 부가된 4차원의 개념은 입체파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4차원의 표현을 위한 큐비즘의 회화는 시각적이라기보다는 이지적, 관념적인 사상의 예술이며, 르네상스 이래 조형 예술의 근본을 뒤흔든 혁명적인 사상으로서 이루어진 예술이다.

큐비즘은 20세기초 세잔느의 조형사상에서 많은 암시를 받았던 바 이 운동은 당시 서양미술을 지배했던 사실주의(realism)에서 벗어나 지성에 의한 조형을 실현하려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으로써, 1907년 피카소의 '아비뇰의 아가씨들'(les Demoiselles d'Avignon)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브라크(G. Braque)역시 이러한 경향의 작품을 시도하였다.

큐비즘이 탄생한 것은 전적으로 피카소와 브라크의 공동작업에서 기인한다.¹⁰⁾

III. 큐비즘의 형성배경과 특성

1. 세잔느풍의 초기 큐비즘(1907~1909)

예술가가 자연의 형태를 기하학적 형태의 요소

로 처음 분석한 것은 초기 르네상스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르네상스시대 서구 회화를 지배해 온 원근법은 2차원적인 평면에서 3차원적인 물체를 묘사하는 기준이었다. 세잔느(P. Cezanne)는 이 방법을 채택하여 그것을 더욱 진전시켰다.

세잔느는 평평한 평면의 존재를 자연에서의 깊이와 매스(mass)에 대한 자신의 감각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원근법의 파괴, 단순화,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고 색채를 통한 공간관계의 한정 등을 문제해결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러한 회화적 공간들이 입체와 예술에 직접적인 영향의 근원이 되었고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창조하게 되었다.¹¹⁾

피카소와 브라크가 도달한 대상 분석의 결과는 대상 파악의 새로운 인식개념을 가져왔다. 이는 관점의 복수화, 즉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으로¹²⁾ 이들은 어떤 관점도 절대적인 관점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대상의 주위를 돌면서 그 내적 구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즉 대상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큐비즘의 제1기로 세잔느의 영향이 짙은 자연 형태의 단순화가 특색이었다.

2. 분석적 큐비즘(1910~1912)

1909년부터 기하학적 분석의 엄격한 form이 적용되어 본격적인 큐비즘이 시작되었으며, 이 경향은 1910년에 이르러 더 한층 본격화되어 과거의 시각적 영상을 아낌없이 파괴하고 수많은 면과 선이 합해졌다. 이것이 큐비즘의 제2기로서 1910~1912년까지 자연형태의 해체, 재조직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의해 해체된 각면을 자유로이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미를 발견하였다. 이른바 과학적, 분석적 큐비즘이라는 것이다.¹³⁾

큐비스트들은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 각 부분을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시켜 봄으로써 구조적인 파악이 용이하게 된다는 사실, 즉 입방체나 구나 원

통형 등을 사용하여 삼차원적인 감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제작 태도는 어디까지나 묘사보다는 구축적인 형태의 파악에 있었으므로 원형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기하학적 형태로 대응된 것이었다. 그 결과 화면은 수많은 면과 선으로 분해되고, 대상은 잃어져 갔지만 대신 조형성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다. 이것은 대상 없이도 조형은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다.¹⁴⁾

브라크는 그의 사실적 의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1910년경 작품에 파편화된 대상들을 등장시켜 대상에 보다 가까워지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1911년의 큐비즘 작품에서 피카소와 브라크는 모든 고전주의 작품에서처럼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조합시켜 균형을 이루어 고전적 예술을 달성시켰다. 자연의 덩어리들을 얇은 평면으로 환원시켜 선명한 색채를 제거하고 조각조각 나뉘어져 뒤섞여 들어가게 함으로써 전체를 추상적인 정면화 구조로 재조합하였다.¹⁵⁾

분석적 큐비즘의 전형적인 예로서 브라크가 그린 '음악가의 테이블'이 있다. 이 그림에서는 평면이나 기하학적인 형, 선, 각도 등이 마음대로 뒤섞여 서로 겹쳐지며 때로는 투명한 평면으로 평판화되고 있다. 브라크가 바라본 테이블은 평면도와 입면도를 동시에 그린 건축가의 설계도와 비슷하다. 이 방법은 많은 평면을 평판화하여 중복시켜 입체를 다면적으로 단편화한다는 것이다.

피카소도 1909년까지 형태와 입체의 윤곽을 그리고 규칙화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1910년부터 두해동안은 기본적으로 회화의 공간과 볼륨을 조각난 면들로 나누어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3. 종합적 큐비즘(1913~1914)

종합적 큐비즘은, 마치 분석적 큐비즘이 전전(戰前)의 회화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전후(戰後)

의 회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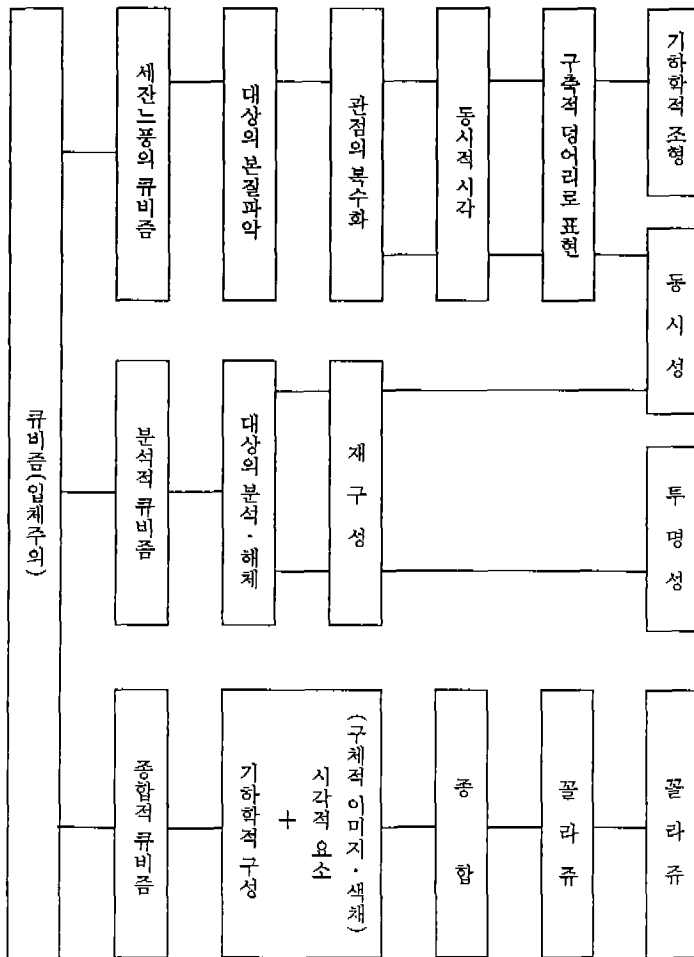
1912년경 입체주의는 현실 세계를 반자연주의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성숙해 졌다. 입체주의는 피카소에 의해 다음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정물화에 등나무 의자 형태의 유포(油布)쫄가리를 부착 시킴으로써 콜라쥬(collage)의 최초 방식인 종이 뜯어 붙이기(파피에 콜레, papier colle)가 시작되었다.¹⁶⁾ 입체파의 양식사 중 분석적 입체주의 시대가 대상의 해체에서 출발하였다면 시각적 요소의 첨가로부터 기인되는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는 화면 질서의 구축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큐비즘의 대가인 브라크의 말대로 “일화

적 사실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회화적 사실을 구성하고자 한다”¹⁷⁾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피카소의 ‘등나무가 있는 정물’(1912)은 파피에 콜레 기법의 시작이다. 실로 끈 밧줄이란 현실의 부분이 그림에 도입되어 있다. 타원형의 형식은 가장자리 주변의 공간적 모호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회화와는 관계없던 물질이 캔버스에 사용된 것은 입체주의가 현대 미술에 기여한 위대한 특징이다. 그 결과 회화와 현실 세계와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신문 조각이 병 또는 의자로 변형됨으로써 시각적 재치의 요인이 되었고, 그 결과 회화 자체가 하나의 사

<표 1> 큐비즘(입체주의)의 특성



물이 되어 현실 세계에 또 하나의 특수하고 자울적인 요소를 취하게 되었다.¹⁸⁾

입체과는 ‘감각은 변형(deformation)시키고 정신은 조형(formation)시킨다’는 브라크의 말과 함께 그동안 전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오브제의 색채 문제도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

1912년이 되자 피카소와 브라크는 그들의 작품에 대상의 보편적 특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형태의 분석을 억제하고 화면에 시각적 요소를 재등장 시켰다. 보다 적극적이며 다양한 색채가 회화 구성상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브라크는 ‘화가는 하나의 상태를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사실을 구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1912년 목재와 대리석을 이용하여 콜라쥬기법을 완성했다.

결과적으로 큐비즘 미학의 전개는 대상을 철저히 분석한 시기를 거쳐 분석된 대상, 즉 기본적인 기하학적 화면 구성에 부분적이거나 구체적 이미지와 색채를 도입시켜 다시 한번 분명한 형태로 부활시킨다는 이러한 종합의 시대에 이르러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큐비즘의 형성배경에서 나타난 큐비즘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V. 복식과 회화에 표현된 큐비즘의 비교분석

1. 회화에 표현된 큐비즘의 특성

1) 기하학적 조형

세잔느는 조형이념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철학에서 받았던 형식의 선형적 개념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그의 형식을 대상 그 자체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자연 풍경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집이나 나무, 산들을 기하학적인 형태와 일치시켜 나갔으나 그것들을



(그림 1) 브라크 ‘레스타크의 풍경’ 1908

반드시 한 시점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연을 원통과 구와 원추로 분리하는 기하학적 분석으로 그 개념을 확립하게 되는 큐비즘의 표현성을 돕기 위한 온갖 우연적인 것들을 대상으로부터 떼어버리고 오직 직선과 곡선, 면과 입체의 형태 구조에 의존함으로써 보다 순수한 본래의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이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모든 물체의 형태는 플라톤적 순수성을 가지고 실현되게 되었다. 큐비스트들의 캔버스를 처음 보았던 사람들이 것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은 기하학적 측면 때문이며, 이러한 측면은 시각적 사건과 일화를 제거하고 본질적인 실체를 지극히 순수하게 그렸다는 사실로부터 파생했던 것이다.

2) 동시성

큐비즘에 표현된 동시성의 개념은 한장의 캔버스 위에 많은 시점들의 공존을 시각화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평면(2차원)위에 시간(4차원)상의 미학적 경험의 지속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관찰자의 운동을 뜻하며, 큐비스트들은 이러한



(그림 2) 피카소 '아버님의 처녀들' 1907

4차원을 표현하기 위하여 대상을 분해하고 해체하였다. 즉 큐비즘은 대상을 해체해서 그 내적 구성을 파악하려 하였고, 그들은 현재과학이 물질에 관한 법칙을 확장하듯이 시각의 척도를 확장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적인 공간 해석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리하여 큐비스트들은 그들의 도형방법으로서 동시표현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시각의 연속적인 이동 또는 시점의 복수화가 그것이고, 시각의 연속적인 이동이 다름아닌 시간을 뜻하며, 그리하여 4차원이 되고 공간과 시간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4차원을 표현하기 위해 큐비스트들은 대상을 해체했다.¹⁹⁾ 1912년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경우, 피카소의 '아버님의 처녀들'(그림 2)에서 보면 그 얼굴부분에 동시성에 대한 입체파의 연구가 보이는데, 하나의 대상이 2개의 면, 여기서 옆얼굴과 정면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또한 점진면의 투명성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입체파의 초기에는 공간의 새로운 표현법의 연구에 몰두하여 색채가 빈약하였으나, 선과 면의 단편들이 다채로워지고 확장되어서 시·공간의 표현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하나인 평탄한면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림 3) 피카소 '게르니카', 1937

3) 투명성

형태는 상호간의 시각적인 파괴 없이 서로 침투하게 되는 것이므로 형태에는 투명성이 부여된다. 그러나 투명성이란 시각적 특성 그 이상의 것으로, 더 넓은 공간 질서를 함축한다.

투명은 공간적으로 분명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어느것이 앞에 있고 어느것이 뒤에 있는지 확실치가 않다. 공간적 패턴은 시각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투명이라는 방법의 사용에는 가변적 시각에 부응하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 그것은 하나가 앞에 있고 또 다른 것이 뒤에 가려져 있을 때 뒤에 있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²⁰⁾ 투명한 형태의 위치는 사람이 각 형태를 보기에 따라서 가깝게도 보이고 멀리도 보이는 모호한 의미를 갖게 된다.²¹⁾

큐비즘의 들어가고 나오고 한 평탄한 면은 서로 침투하고 섞여 있으며, 때로는 투명해서 이것을 사실적인 위치에 고착시키는 것은 거의 없으며 원근법의 단일 초점에 집중되는 선과는 기본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²²⁾ 그리하여 여기에는 대상을 담은 투명한 판으로 평탄화·중복시켜 입체를 다면적으로 단편화하고 이 단편화된 대상을 재조립함에 있어 대상의 윤곽들이 상호침투·교차하게 된다. (그림 3)

투명성은 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서 ‘단순성’으로 나타나 근대의 대명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보편적 투명성은 점차 부정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프랑스 정부 후원에 의한 그랑 프로젝트(Grand Projet)에서 다시 부흥되었다. 이것은 프랑스 정부의 전 권력을 대표로 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자 하는 절제된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현재 파리에서 유행되고 있으며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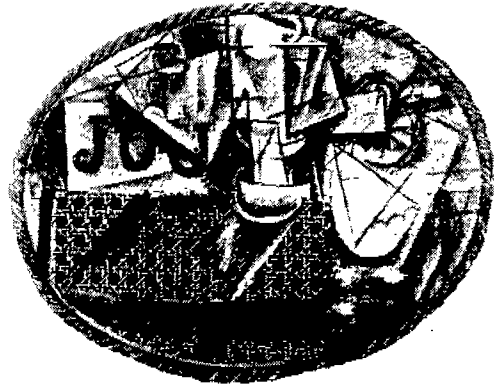
근대화가들의 작업중에서 이룩된 떠있는 것 같은 투명성은 르 꼬르뷔제의 회화 ‘정물, 1924’ 속에도 반영되고 있다. 큐비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오장광과 그는 평범한 대상이나 투명성의 문제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에서 보이는 각종의 대상과 윤곽의 사이에 “윤곽의 배합”은 르 꼬르뷔제가 후에 그의 건물에서 이룩한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을 암시한다.²⁴⁾

피카소의 ‘클라리넷 연주자, 1911’의 작품에서 우리는 깊이가 있는 공간 속에서 있는 도형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지만, ‘브라크의 포르투칼인, 1911’의 작품에서는 깊이가 없고 평탄하여 옆으로 확대된 고안 속에서 물리적으로 명확한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 피카소의 작품에서는 실(實)의 투명성을 볼 수 있지만 브라크의 작품에서는 허(虛)의 투명성을 볼 수 있다.

4) 꼴라쥬

회화의 구조에 있어서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 회화적인 공간과 물체, 장소 등의 사실적이고 물질적인 인식의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상반성을 변경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입체파 화가들은 화면을 평면화하면서 면을 덧붙이거나 볼륨 및 견고한 형태 위에 다면체의 분열을 꾀하였다.²⁵⁾

큐비즘에서 꼴라쥬 기법의 창안은 대상과 이미지의 관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



(그림 4) 피카소 ‘동나무의자가 있는 정물’, 1912

취급됨으로써 근대 일루전 미학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진다.

피카소는 1912년초 ‘동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그림 4)을 제작했는데, 그는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붓과 물감에 의존하는 대신에 의자 등받이의 엮어 짠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상업적으로 인쇄가 된 기름칠 조각을 캔버스에 붙였다. 이 작품으로 그는 현대미술의 가장 자유로운 기법의 하나인 꼴라쥬를 창안하였다.

브라크는 고조된 형태의 분석에 의해 특징지워진 큐비즘의 동시성의 구사에서 물체들을 잔상의 파문을 가진 듯이, 또는 다른 시점에서 보고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예의 형태들로 나타냈다. 브라크는 더욱 발전시킨 꼴라쥬의 형태로, 프린트한 종이나 장식지, 신문의 조각을 캔버스 위에 붙이고, 그 위에 잉크나 연필 혹은 오일 페인트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꼴라쥬의 작업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조형적인 역할과 물질성의 역할이었다.

반면, 피카소는 브라크와는 달리 조형적인 면보다는 자연적이고 지적인 화면을 구성하는데 노력했고, 꼴라쥬를 구성하는 재료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외부 물질의 단편들이 입체파 회화에 들어서면 언제나 일종의 변형이나 변질이 일어난다. 이에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은 본질적으

로 하나의 사물이 피카소의 배경과 결합하여 새로운 상황으로 나타난다.

입체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 연상작용과 충돌은 브라크의 작품을 통하여 기억된 이미지를 암시하는 단순한 역할로부터 시작하여 피카소에 이르면 점차 복합적인 변형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되는 것이다. 입체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 연상작용과 충돌은, 브라크의 작품을 통하여 기억된 이미지를 암시하는 단순한 역할로부터 시작하여 피카소에 이르면 차츰 복합적인 변형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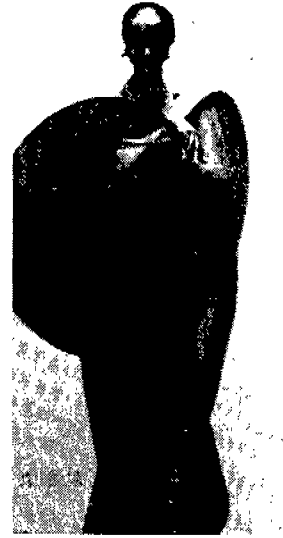
2. 복식에 표현된 큐비즘의 특성

1) 기하학적 조형

각 부분을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시켜봄으로써 구조적인 파악이 용이하게 된다는 큐비즘의 표현성은 직선과 곡선, 면과 입체의 형태구조에 의존함으로써 보다 순수한 본래의 형태를 추구하게 되었다.

복식에서 이러한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의 여러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단순화된 기하학적 조형형태를 이용하여 의복을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Y. S. Laoulant은 브라크(G. Braque)의 새와 정물을 큐비즘적 구도로 재현하여 표현하였고, I. Miyake도 주름잡힌 한 장의 천으로 자유롭게 연출한 여러 가지 다른모습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미야케는 인체와 천이 상호존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그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이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흡수하고 흡수되면서 움직임에 의해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현대적 표현에서 대상의 재현을 추방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는 Pierre Cardin작품으로 한 장의 천에서 출발된 아이디어로 한장의 천을 몸에 감아서 옷을 대신한 미니멈 드레스이다. 대표적 디자이너



(그림 5) Pirre Cardin, 패션디자인발상 트레닝2, p.18.

로는 Pirre Cardin, Y. S. Laoulant, Issey Miyake, R. Kawakubo, Vuokko Normeshimi, Junko Koshino, Jean Louis Scherrer, Paco Rabanne등이다.

2) 동시성

한 장의 캔버스위에 많은 시점들의 공존을 시각화하는 개념으로서 큐비스트들은 대상을 해체해서 그 내적구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에서 옆얼굴과 정면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의복에서도 한 의복을 분해·해체하여 다른 아이템으로 재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셔츠나 스웨터를 해체하여 스커트로 만들기도 하고 바지를 분해하여 롱스커트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셔츠, 스웨터, 바지의 아이템은 없어졌지만 대신 조형성은 더욱 풍부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점의 복수화 즉, 시각의 연속적인 이동으로 시간을 뜻하며, 이리하여 4차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림 6)은 Junya Watanabe의 작품으로 셔츠를 해체시켜 니트탑과 연결시킴으로서 셔츠는 스커트의 역할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원피스 형식을 띠고 있다.



(그림 6) Junya Watanabe, '93~94 A/ W, TK/ NY, Collection, p.24.



(그림 7) Rifat Ozbek, '97 S/ S, P/ R, Collection, p.221.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Mariot Chanet, Junya Watanabe, John Galiano, Milk/Milk Boy/O. D.O.B, Jin Té-Ok. 등이다.

3) 투명성

평탄한 면들이 서로 중첩되었을 때 대상의 윤곽들이 상호침투·교차하게 된다. 이러한 윤곽의 배합은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을 암시하게 된다.

여러겹으로 된 의복에서 한장의 천이 앞에 있고 또 다른 천이 뒤에 가려져 있을 때 뒤에 있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겹쳐진 곳의 뒷부분에도 또 한장의 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내부와 외부의 상호관입을 느끼게 된다.

투명한 비닐로 만든 스커트와 자켓안에 불투명한 탑과 반바지를 입고 있지만 투명한 비닐 자켓과 스커트에 의해 비치는 인체에 의해 불투명한 탑과 반바지 내부에 인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의복이 겹쳐져 있어도 그 윤곽들이 상호침투·교차하게 되어 공간속의 인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은 허리와 다리부분은 투명한 소재를 이용하고 탑은 불투명한 소재를 이용하였다. 또한 헝과 무릎부분도 러플의 중복으로

반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투명함과 불투명함의 중첩으로 입면이 형성되고 있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관입과 면과 면의 상호침투를 느낄 수 있다. 이에서 공간적 의미에서의 시·공 개념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John Galiano, Rifat Ozbek, Karl Lagerfeld, Maurizio Galante, Missoni, Romeo Gigli, Trussardi, Gemma Kahng, Maurizio Galante 등이다.

4) 플라쥬

큐비즘에서 다다이즘(Dadaism), 쉬르리얼리즘(Surrealisme)을 거쳐 팝 아트에 이르기까지 플라쥬는 표현과 형식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표출되었으며 그 양상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원래 불어에서 플라쥬는 어원적으로 풀칠, 풀칠하여 붙이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술에서는 하나의 받침 판위에 이종재료의 조각들을 붙이고 조립하는 방법이며 특히 화면에 인체물이나 천, 쇠붙이, 나무 조각, 모래 등을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을 지칭하거나 그 기법에 의해 제작되는 회화 일반을 가르킨다.²⁶⁾



(그림 8) 세계각국의 그림엽서를 코팅해서 붙인 미국 수상작품 1998. 2, ELLE, p.137.

큐비즘 후기에 사용된 폴라쥬는 신문지, 문자, 직물조각 등이 구체적 이미지와 색채등을 도입·중합시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대상을 암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폴라쥬 요소들 특히 파피에 콜레는 회화에서 구성된 추상적 요소 대신에 실제적인 주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나무판이나 대리석의 무늬를 그린 벽지를 단편적으로 화면에 첨부했으나 점차로 신문·트럼프·성냥갑·악보·초청장·담배갑 같은 인쇄된 물질을 등장시켰다.

의상에 표현된 폴라쥬기법은 벽지, 사진, 삽화 등을 오려내어 프린트하여 붙인 재치있는 디자인과 꽃, 나무열매, 나뭇잎을 의복에 부착시켜 표현한 폴라쥬룩, 그리고 페치워크 방법 등이다.

치사토(Tsumori Chisato)는 손뜨개 조각천들을 옷에 덧붙여 만든 폴라쥬룩을 표현하였으며 카스텔바작(J. C. de Castelbajac)은 투명한 비닐안에 여러 가지 엽서를 넣어 코트로 표현하였다. (그림 8)은 세계각국의 그림엽서를 코팅해서 붙인 미국 수상작품으로 폴라쥬룩을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Tsumori Chisato, Com-

me des Garçons, Enrico Coveri, J. C. de Castelbajac, Kyokohiga, Cheap & Chic by Moschino, Thierry Mugler등이다.

V. 결 론

현대미술이라면 난해성과 혼란 그 자체를 쉽게 연상하리만큼 일반화 되어 있고 또한 피카소의 이름도 같이 기억될 수 있다. 바로 현대미술 가운데 큰혁명과 시발점을 가리킨다면 피카소나 브라크 그의 여러 화가들에 의해 성립된 입체파의 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세기에 가장 큰 변혁을 가져온 큐비즘은 미술 양식으로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그림의 개념과 보는 사람들의 시각세계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삼차원적인 원근법을 탈피하고 '시·공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간의 혁명을 촉발시킨 결과였다 할 수 있다.



큐비즘의 형성배경을 보면, 대상을 단순화하여 기하학적인 조형으로 표현하고 다음엔 대상을 단편화하여 해체시키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였다. 여기에서 동시적인 시각과 투명성을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기하학적인 구성과 시각적요소(구체적 이미지, 색채)를 중합하여 폴라쥬를 탄생시켰다.

복식과 회화에 표현된 큐비즘의 비교분석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하학적인 조형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하학적 분석을 이용했으며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버리고 직선과 곡선, 면과 입체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즉 대상을 단순화시켜 기하학적인 조형으로 표현하였다. 복식에서는 원, 삼각형, 사각형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든가 한 장의 천을 이용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출하고 있다. 이는 인체와 일치하지 않는 3차원의 공간이 움직임에 따라 시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동시성은 대상을 파악하고 분해·해체하

<표 2> 회화와 복식에 표현된 큐비즘의 특성 비교

대표적 화가	회화	관련성	복식	대표적 디자이너
피카소 · 브라크	<p><세여인> 피카소, 19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을 단순화 · 기하학적 형태 · 구축적 덩어리로 표현 	<p>기하학적 조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을 단순화 · 한 장의 천을 이용한 디자인 · 원, 삼각형, 사각형 등 기하학적 형태의 디자인 	<p>기하학적인 조형 Issey Miyake, 19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erre Cardin · Issey Miyake · Paco Rabanne · L. Kawakubo · Yohji Yamamoto
피카소 · 브라크	<p><아비뇰의 처녀들> 피카소, 19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의 분석, 해체 · 재구성 · 관점의 복수화 (동시적 시각) 	<p>동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을 분해, 해체시켜 다른 아이템으로 구성 · 해체된 아이템과 다른 아이템의 결합으로 새로운 아이템 구성 	<p>바지를 해체하여 만든 스커트 진태옥, 19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nya Watanabe · Jin Té-ok · Milk / Milk Boy / O.D.O.B · Issey Miyake
피카소 · 브라크	<p><게르니카> 피카소, 1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을 투명한 평판으로 중첩시켜 입체를 다면적으로 단편화 · 대상을 단편화, 재구성 하는데 있어 대상의 윤곽이 상호, 침투 	<p>투명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겹으로 겹쳐진 의복에서 앞, 뒤의 상호, 침투를 시각적으로 인식 · 투명한 소재와 반투명한 소재의 사용으로 내, 외부 공간의 상호관입 인식 	<p>겹쳐진 천의 앞뒤 공간이 상호, 침투 Maurizio Galante 19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fat Ozbek · Maurizio Galante · Karl Lagerfeld · Romeo Gigli · John Galiano
피카소 · 브라크	<p><바이올린> 브라크, 1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하학적 구성 · 시각적 요소 (구체적 이미지 · 색채) = 폴라쥬 	<p>폴라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 엽서, 깃털, 금속, 플라스틱 등을 의복에 붙여 표현 · 패치워크 	<p>폴라쥬룩 J.C. de Castelbajac 19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 C. de Castelbajac. · Jsumori Chisato. · Enrico Coveri. · Comme des Garçons.

여 재구성하였다. 즉 대상을 해체하여 그 내적 구성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대상의 해체와 재구성은 시점의 공존을 시각화하였다. 그리하여 큐비스트들은 그들의 도형방법으로서 동시표현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복식에서는 아이টে를 해체하여 다른 아이টে를 표현하거나 해체한 아이টে와 다른 아이টে를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টে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셋째, 투명성은 대상을 투명한 평판으로 중복시켜 입체를 다면적으로 단편화 시키고 그 단편화된 대상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대상의 윤곽들이 상호·침투·교차하였다. 이것은 시각적 특성 그 이상의 것인 바, 더 넓은 공간질서를 함축하고 있다. 복식에서는 여러겹으로 겹쳐진 의복에서 앞, 뒤의 상호·침투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투명한 소재와 반투명한 소재의 사용으로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을 인식할 수 있다.

넷째, 콜라주는 기하학적 구성에 시각적 요소(구체적 이미지, 색채)를 첨가시켜 표현하였다. 캔버스에 회화와는 상관없는 물질을 신문지, 문자, 직물조각 등 구체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다양한 색채를 도입·중합시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대상을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복식에서도 인형이나 엽서, 깃털, 금속, 플라스틱 조각 등을 의복에 붙여 콜라주룩을 표현하였고 또한 페치워크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Milla Contini, 5000 Years of Fashion, (Milan : Arnoldo Mondadori, 1977), pp.32~39.
- 2) J. A. Farrell-Baek & J. V. Petsch, Colors Compared : Matisse and Picasso with Chanel and Vionnet, Americ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3, No. 22. 1984, pp. 206~214.
- 3) Jean. A. Hamilton,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 Textile" C. T. R. J., Vol. 6, 1987.
- 4) Marlyn R. Delong,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 Press, 1987, pp.7~13.
- 5) 이경훈, "큐비즘이 근대건축운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p. 4.
- 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 대사전」, 동녘, 1989, p.103.
- 7) 김광숙, "모더니즘에 나타난 시간성과 공간성",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9.
- 8)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 Press, 1973, p.435.
- 9) Bruno Zevi, Architecture as Space, 강혁 역, 「공간으로서의 건축」, 기문당, 1985, p.171.
- 10) 존 골딩, 황지우 역, 「큐비즘」, 열화당, 1988, p. 13.
- 11) 손연훈,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12.
- 12) 이경훈, op. cit., p.8.
- 13) Ibid.
- 14) 김진숙, "큐비즘과 르포르뷔제 작품의 관련성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24.
- 15) 손연훈, op. cit., pp.27~28.
- 16)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일지사, 1976, p. 60.
- 17) Douglas Cooper, The Cubist Epoch, Phaidon Dutton, 1970, p.263.
- 18) Pablo Picaso, 예경, 1996.
- 19) 이경훈, op. cit., p.39.
- 20) 김소희, "현대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에 관한 연구", 홍대석사학위논문, 1996, p.8.
- 21) G. Kepes, 유한태 역, 「시각언어」, 대광서림, 1990, p.77.
- 22) S. Giedion, op. cit., p.137.
- 23) Anthony Vidl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The Architectural Uncanny,

1992, pp.217~225.

- 24) 김진숙, op. cit. , p.63.
 25) 정준모, “플라쥬 기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26.
 26) 박경자, “현대 건축에 나타난 플라쥬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5.

ABSTRACT

The Study on Cubism expressed in Current Fashion

Cubism has played a great role to change traditional concept of art and visual of people as developed into one of new art styles. It has avoided three dimensional perspectives and reformed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It expresses objects with geometric shape by simplifying and reconstructing the objects after taking them apart. This has the effect of simultaneous vision and transparency and brings in collage by combining geometric image and visual ele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s follows :

First, the geometric shape expresses straight

lines, curves, faces, and cubics by simplifying the objects. In fashion, it expresses circles, triangles, squares with a cloth.

This shows visual changes as three dimensional space moves.

Second, simultaneity disassembles and reconstructs the objects. It tries to understand the internal shape with method of disassembling and makes visions coexist. In so doing, cubists adopt simultaneity for expressing shapes. In fashion, it expresses new items through disassembling or combining with other items.

Third, transparency simplifies cubics by duplicating with transparent flats and crosses contour lines for reconstructing the simplified objects. This implies broader spatial order.

It allows people to perceive penetration of layered clothes.

Fourth, collage expresses geometric shape by adding visual elements(concrete image and color). It uses concrete image with paper, letters, cloth, etc., which is not related to painting, and introduces various colors. In fashion, it uses dolls, postcards, feathers, metals, plastics, for patchwork.